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

일자리 없는 성장 급격히 진행

성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과거에도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일자리 없는 성장의 추세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 문제가 해결하고 국민의 후생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갑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절벽 끊어지듯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성장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 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성장이라도 어떤 성장이나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됐고, 같은 일자리라도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 후생복지와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생복지 향상 없는 성장은 지속되지도 의미도 없어

성장의 성과가 따로 있고 국민의 후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후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경제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국민경제의 구조입니다. 많은 외부 요인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도 지속할 수 없거니와 성장의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나 행동 조직의 관성이라는 것, 즉 성장만을 쫓기 시작한 조직의 관성은 여간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서 ‘대책을 세우자. 국가 전략의 패러다임을 한 번 바꿔보자.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전략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전략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 보았지만 성장 위주의 관성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과 국민의 후생, 국민들의 일자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여러 차례 시행을 반복하고 축적 되어서 나온 정책이 오늘 이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일자리를 어디에 몇 개 만든다. 누가 돈을 얼마 더 쓴다.’가 아니라 경제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시고 오늘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